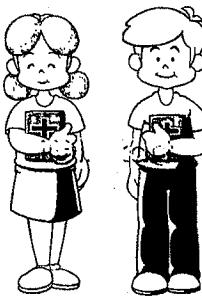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당신은 내 인생에 참 좋은 봇입니다

최 옥



당신이 아프거나 절망할 때
내가 쓸았던 눈물을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의 모퉁이를 돌때마다
그 눈물속에 나를 담궈본다는 사실
또한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 참 좋은 봇입니다.

사랑한 시간보다
미워한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

사랑한 마음 한번으로
열번백번 미워한 마음 지웠다는 거
괴롭고 슬픈날위에 기쁘고 즐거웁던
기억 얹으며 조용히 견뎠다는 거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 참 좋은 봇입니다.

당신이 날 쓸쓸하게 할 때면
내 마음 깊은 우편함에
눈물로 봉한 편지 하나 띄웠다는 거
바람부는 거리에서 커피한잔 뽑으며
가끔은 나도 이별을 생각했다는 거
당신은 모르겠지만

삶의 끝에서 마지막 부를 이름
당신은 내 인생에 참 좋은 봇입니다.



◀그땐 그랬지 ▶ 코메디언 이기동과 이대성

장소팔, 고춘자/양훈, 양석천/송해, 박시명...콤비를 이룬 코메디언 가운데 이기동 이대성 콤비도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뚱뚱하고 신사 같은 두 사람의 어울림으로 이루어낸 웃음은 ‘웃으면 복이와요’를 보면서 삶의 시름을 잊게 하였습니다. 이기동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짹인 이대성 씨의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그와 짹을 이루었던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단짝 콤비들, 우정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p>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p>	<p>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p>	<p>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p>
<p>제8권 4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1월 12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p>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90세 할머니의 기도

전남 노초면 동우이도 박양기 할머니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 하요.

내 젊은 청춘 다 가고 내 나이 90 이 넘었소.
이제 아버지 나라에 나 초대 좀 해 주시오.
가고 싶소.

그라고 이 할멈들만 사는 이 섬에 맨날 왔다 갔다하는
객선도 아무 탈 없이 잘 댕기게 해 주시고
육지에 있는 우리 자식들도 보호해 주시고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오.

아버지, 나 불러 갈때 깨정 건강하게 해 주시오
그래야 물이라도 끓여 먹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갈것 같아요.

이제 마음에 준비가 다 되었을께
나 좀 꼭 불러 주시오.
그 나라 가서 좋게 살고 싶어요.

내 죄땜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요..
아~멘

◀말씀따라 행하기▶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아름다운 양털을 포기했다

◀인품따라 행하기▶

알콜에 담그면
물체를 보존할 수 있다.
알콜로 보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뿐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y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4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	39(이사야 55)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361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이재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득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4:5-7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두 번째 시험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02장	다 같 이
현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비록 갈보리교회 교인들의 평균치 정도 밖에 드리지 못한 점,
또 뒤늦게 드리는 점, 몹시 부끄럽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전건축헌금 드린 교우의 현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2,437 + ₩30,000	총액:\$151,105
-------------------------------	--------------

◆11월 예배위원◆

◆11월의 교회력 ◆

일자	기 도	차 량	안 내
29	양경배	이근평	본당:윤주야
5	이근평	이재영	임혜자
12	이재영	김교섭	현관:박일영
19	정관영	박일영	이광희
26	조용건	이광희	새교우:이근평, 장유진

	주 일	예배와 모임
5		월초새벽기도회(1) 여선교회(5).구역예배(10)
12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4)
19	추수감사주일	
26	이삭줍기주일	수요수도원(29)

『교 회 생 활』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토 오후 5시	

1.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춘계 대심방 관계로 쉬겠습니다.
2. 금주 춘계 대심방
<13일(화)> 3구역(11시) <17일(금)> 3구역(저녁 6시)
*심방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심방시 식사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3. 세례식. 12월 첫주일(3일)
*세례 대성교우들께서는 구역장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는 12월 25일에 갖습니다.
4. 성전건축을 위해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전이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성전건축헌금 드리며 바친 어느 교우의 마음의 표현 앞에 거룩한 숙연함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5. 전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 교회출석을 하지 않는 낙심 이웃에게 함께 교회가자는 권유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길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6. 새벽기도회 <금요일 새벽 5:55분>
*내가 기도드림으로 내 가정이 복 받는 것,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착한 시인들▶ 하나님의 눈을 노영욱

주님.

제가 첫사랑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끓게 인도하소서.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아픈 대로 눈물나는 대로
울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제가 목이 메어 기도드리다가 멈추고
또 기도드리다가 멈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건을 꺼내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벽 앞에 썼는 것 같을 때 실컷
울고 나면 거침없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제 눈물이 말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한 방울씩의 눈
물 속에 진심을 담고 싶어도 그
한 방울의 감격도 잊은지 오래입니다.

삶의 진실을 잊은 것인지, 마음
가득히 속물로 채워진 것인지 어
쨌든 내게서 그 무엇이 멀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TV속의 작은 감동에도 흐르는
내 눈물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나
의 눈이 다시 적셔 지는 날, 나
를 다시 찾은 기쁨일 것입니다